

탄핵 카운트다운... 열흘 내 끝낸다

현재, 7일째 선고일 지정... 10일 유력·늦어도 13일
박영수 특검, 탄핵 선고 전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탄핵 사건 종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현재가 7일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경우 10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늦어도 13일까지는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이와함께 박영수 특검검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오는 6일 직접 연단에 올라 90일 동안 진행했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박 특검은 6일 오후 2시로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 때 직접 마이크를 잡고 수사 경과와 주요 성과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검의 결과 발표는 현재 결정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8명인 현재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 곧바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현재가 탄핵을 받아들이면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5월 초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관 가운데 탄핵소추를 기각또는 각하하는 숫자가 3명에 이르면 박 대통령은 즉시 임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대선은 애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실시된다.
한편 현재의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적폐해소를 위해 정권교체를 주장해온 진보세력과,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는 보수세력은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첨예하게 맞서왔다.
따라서 현재의 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진영에서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불복 운동에 나설 개연성이 커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등학교 입학식... "친구들아, 반가워" 광주 광산구 장덕동 고실초등학교 신입생들이 2일 오전 열린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신기한 듯 학교 내부를 둘러보며 강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대선공약' 공조체제 구축

광주시장·대구시장 '공감'
철도건설추진협 꾸리기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 도시가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광

주~대구 간 내륙철도 조기 건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공감회의에서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 대구시를 방문 중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양 도시의 숙원사업인 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인적 교류를 물론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당당 부서는 '철도건설 추진협의회'를 조속

히 꾸려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만간 '내륙 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구시와 협력력을 통해 다음 정부의 대선 공약 등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은 광주시와 대구시의 숙원사업만이 전남과 전북,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등 8

개 광역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회의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영·호남 교류뿐 아니라 두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영·호남 산업 간 협력과 국토 남부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라는 점에서 조기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광주~대구간 내륙철도는 광주~남원~함양~대구까지의 총 연장 191km이며 총 사업비만 4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철도에 고속열차를 운행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는 1시간50분으로 단축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제52회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

문화전당~금남로~영산강
생동하는 남도의 봄을 달린다



5일(일) 오전 8시30분 출발
일부 교통통제 양해 바랍니다

광주일보 주최 제52회 3·1절 기념 전국마라톤 대회가 3월 5일 오전 8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관련기사 20면>
올해로 52회째를 맞는 3·1절 기념 마라톤대회는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한 3·1만세운동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남도의 새봄을 깨우는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레이스입니다.
이번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직장인·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여해 풀코스(하프코스)와 하프코스 2개 부문으로 치러집니다.
대회 구간은 문화전당에서 출발해 도심을 가로질러 영산강길을 따라 달리는 명품코스입니다. 서창교(하프코스)와 승촌보(풀코스)에서 반환점을 돌아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회가 시작되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부득이하게 일부 도로의 교통통제가 이뤄집니다. 시민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 주관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 마라톤세상**
-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지방경찰청 K water
- 협력 **진행 | 전남대 체육교육과, 향림사 반야불사단**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 운동처방학과
코스 | 광화문마라톤모임 페이스팀, 전남대 동아리 노란자전거
- 협찬 **광주은행 금호고속 한국수력원자력**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光州日報社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⑥ 민주당·이재명 ▶5면
광주 미량지구 한 구역 두 사업 ▶6면
新팔도유람·강원도 '도깨비'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광역시

"모바일광주 앱"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내 손안에!

최신 소식을 빠르게

공무원시험정보, 축제·공연정보, 일자리정보 등

광주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버스도착, KTX/SRT, 미세먼지, 레저정보 등

생활을 더 윤택하게

무로주차장, 광주맛집, 복지혜택정보 등

Android

iOS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를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광주